

◎ 미하이웃을 사랑합니다

대림 제3주일(자선의 날)  
제1독서 : 스바3,14-17  
제2독서 : 필립4,4-7  
복음 : 루가3,10-18

# 순정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립4,4-5).

## 강론

### “주는 자와 받는 자”

서용복 신부 / 영등동 천주교회

성탄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고 기쁜 날입니다. 이때가 돌아오면 백화점과 상가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내왕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카드와 선물을 보내 정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교회에서는 선물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절하게 친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항상 주려고 힘쓰면 자립생활을 내가 먼저 하여야 남에게 줄 수 있으니 분투노력하게 됩니다. 둘째, 자기 본위의 생활만 하여 욕심장이가 되면 고상한 인격이 못됩니다. 신령한 가치와 사랑, 진리보다도 물질은 더 사랑하면 인격이 낮아집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소유욕, 물질욕을 버리면 인격이 고상하게 됩니다. 셋째, 내 것을 희생하여 남에게 줄 때에 보통시 깨닫지 못한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충실하게 노력하는 생활을 하면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생활중에 고상한 인격의 한면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커졌고 조카 롯의 재산도 커졌습니다. 그들의 종들도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높은 산에 롯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 아래 모든 전답을 보이며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재미롭지 못한 일이 많으니 헤어져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앞에 보이는 산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니 롯은 살찌고 기름진 소들펀고 모라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산골짜기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준 사람이고 롯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후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가 당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골짜기를 차지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잘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남에게 주는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 소리

### “고통없는 구원?”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밝음과 질서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소식도 미담이나 반가운 내용이 언론에 더 많이 다뤄지기를 갈구하게 마련이다.

그런 소망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주보 ‘순정이’가 너무 어두운 이야기들로 꾸며져서 싫다는 반응 같은 것이다.

구약시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바쳐졌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지나간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가는 여행길 같았을 것이고 때로는 그 어둠이 지긋지긋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런 결단을 스스로는 하고 싶지 않고 남이 대신 해주는 것을 소식으로 접하면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무어라고 해야 좋을까?

그리고 스스로를 촛불처럼 햇불처럼 밝혀가며 고통을 견디는 신음소리가 듣기 싫으니 그만두려는 마음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 신음소리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있을 수 있을까? 잘돼가고 있다는, 별 문제없을 거라는, 좋은 게 좋으니 덮어주며 어떻게 해나가는게 어떠한 식의 삶은 복음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소리이고, 그리스도의 소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에 찬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인 것이다. 어두운 이야기는 그래서 그칠 길이 없는 것이다. **아직은 [질]**

### 순정이 산책



# “제8회 자선의 날을 맞으며”

대림환에 세번째 촛불이 밝혀진 오늘은 제8회 자선의 날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불안하고 사회의 허탈이 우리 이웃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대림시기에 회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우선 내 안의 잡스러운 쓰레기를 말끔히 쓸어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잡아 회개의 불길이 당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요한은 “속옷 두 벌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자선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구의 공동체적 나눔의 실천들을 소개합니다.

### ①공동 헌금의 실시

사회복지주일과 사순절 공동 헌금의 날, 걸프전 난민을 위한 2차 헌금 등 세 차례 공동 헌금에 57개 본당 모두 참여하여 복지주일과 사순절 공동 헌금으로 23,502,830원, 걸프전 난민 헌금이 12,157,886원으로 전국 인성회를 통해 각 해당 나라들에 보내졌습니다.

### ②본당 차원의 나눔활동

각 본당에서는 사회복지분과와 빈첸시오회를 통하여 본당 예산의 5% 이상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른 방법들로 나눔미사나 성미운동 등을 펴고 있습니다.

### ③교구 사회복지 후원활동

‘사랑의 다리’ 회비는 올해 57,719,468원으로써 후원지향별로 영세 모자세대(편모가정)에 3,915,454원, 병자후원으로 2,100,994원, 나환자 후원으로 2,500,994원, 신체장애인(무지개가족) 후원으로 32,557,294원, 정신박약(작은 차매의 집) 후원으로 6,946,044원, 영보 은혜의 집(나환자 양로원)에 5,201,494원, 기타 일반 후원(노인, 청소년)으로 4,497,149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헌금들은 그 뜻의 송고함을 잃지 않도록 책임 신부님과 책임자를 통해 정성껏 사용됩니다.

그밖에도 많은 분들이 직접 시설들에 물질뿐 아니라 손과 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가진 이들의 과소비와 사치, 쾌락주의 등으로 소외계층에 실망감,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고, 젊은이들은 힘든 직업을 기피하고 편한 직업만을 찾아 실업 인구는 늘어가면서도 생산적 근로자는 구할 수가 없는 이상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빈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표정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요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이신 가난한 이웃들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태도는 회개를 통하여 용서 받음으로써 이웃에게 자선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필립4, 5).

전주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 성모 지압 침술원

디스크 및 제반 증상 치료를 위한 지압과 침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원장 박종민(가브리엘)  
전주시 서신동 298-8(서신동 성당 옆) ☎ 77-5997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이용실·이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오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역

☎ 84-7294

##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잡 관

“자선의 의미”

사람이 구름처럼 물러드는 도시의 복잡한 거리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 차 안에서 애절한 사연을 늘어 놓는 고학생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는 걸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돈이든, 쌀이든 얼마간의 도움을 준 경험을 갖고 있다. 생각해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다양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냉소를 보내거나 아예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도덕적 의무에서 동전 몇 닢 던져주고 할 일을 다했다고 자위(自慰)하고...

자선의 날인 오늘, “눈물도 인정도 도덕성도 메달라버린 지 오래인 이 땅에 비록 가난하지만 세계 굴지의 재벌보다 더 풍요로운 마음과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거지들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 가족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유서 쓰는 기본으로 세상을 살며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왕 김춘삼 씨의 고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선은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값싼 동정이나 어떠한 형태든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선은 우리의 삶을, 생명을,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80만의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리어카아(rear-car)라도 끈다”며 자랑하는 거지왕 김춘삼!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그런 자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40).

교 구 소 식

1. 자선의 날 2차 헌금: 12월15일(오늘) 각 본당에서 있습니다.
2. 성탄 위문금(품) 수집: 성탄을 앞두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장병들, 추운 감옥에서 지내는 수인들과의 나눔을 위해 위문금, 위문품, 위문편지를 수집합니다.  
마감-12월21일(토)까지 사회복지회(84-5290).
3. 제7차 전주 선택: 1월24일-26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대상-젊은 미혼 남녀,  
회비-30,000원, 접수-선착순 교육국.
4.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1층 강당.
5. M.E. 소개모임: 12월21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3층 M.E. 사무실.
6. 태아생명 보호미사: 12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7. 시청각 통신성서교육 안내[신구약성서 입문과정(2년)]: 구비서류-입학원서, 증명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92년 1월1일~2월10일까지, 원서대-3,000원,  
문의-성바오로 서원(0652)252-3398.

- **성소모임** 사랑의 씨튼수녀회(피정): 12월22일 9시30분-17시 본원(062) 571-3004.  
한국외방선교회: 12월22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923-194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청정제, 방향제 사용 금지!

양변기의 청정제나 방향제, 탈취제 등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들 독성의 물과 기체들이 다시 우리의 식수와 공기로 되돌아움을 기억합시다.

**관인 다예미술학원**  
\* 방학특강 \* 92년 원아모집  
크레파스화, 수채화 집중지도  
원장과 아동미술 전공교사 지도  
**박 경 화(마리아)**  
효자동 ☎223-8355

**샤 넬 안 경 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 비 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이 황 주 유 소**  
이 명 구(베네딕도)  
황 연 화(울 리 아)  
☎ 856-8998



**유치원 교사 모집**  
1. 경력·초보교사: ○명  
- 몬테소리 자격증소지자  
2. 구비서류: 전학년 대학 성적증명서  
3. 마감: 1991년 12월27일  
4. 면접: 1991년 12월28일  
※ 92년 대학 졸업자 해당  
문의: 유치원 (0653)53-7157  
금마 천주교회 유치원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장소: 제주도 '형제의 집  
피정센터'  
(한국순교복자수교회)  
서울 (02)516-3404, 548-7095  
충부 (0431) 52-8559

혼수(회갑) 옷감, 혼수 이불  
맞춤, 약혼복, 커튼  
**서울주단**  
모드론 이불 전주대리점  
(중앙 성당 옆)  
김 완 준(안토니오)  
박 윤 화(베로니카)  
☎ 252-0453, 77-5095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독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오늘은 자선의날 2차헌금 있습니다.
  2. 판공성사: 17일~20일 후3시~5시(면담후 성사표 배부) 17일 - 중노2가2구역, 18일 - 인후1구역, 19일 - 인후2구역, 아중리 20일 - 동진아파트
  3. 세례식: 21일 후4시(저녁미사없음)  
집중교리 - 17일~20일 전9시, 후7시30분.
  4. 제대회 총회: 19일 전10시30분 5. 재속 형제회: 21일 후2시.
  6. 중노1가2구역 구역·반회장 간담: 구역장-양정숙, 중노1가12 반 반장-최영숙.
  7. 금주침소: 중노2가8,9반 차주침소: 중노2가10,11반
- 지난주 봉헌금: 814,470원 □ 교무금: 3,634,3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1. 영세식: 22일 공식미사 중(집중교리 16일~21일, 방7:30분)
  2. 신부님 영명 축하식: 22일 공식미사 후, 영육간에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불우이웃돕기: 황길병(10만원), 요셉회(5만원)
  4. 성모상 건립 헌금: 송요셉(2십만원), 익명(2만원), 박누시아(3만원), 김아가다(3만원), 이요안나·김말다(각각10만원)
  5. 대인 수련생을 위한 미사: 16일(월) 저녁7시
  6. 회합: ①성우회 정기총회(공식미사 후) ②대건회 송년회(18일 오후6시) ③부녀회(19일 오전10시)
- 성당침소(21일) 이방의 빛Pr 밝혀오리다Pr  
요셉회 임원개편: 회장-황길병 총무-송철수  
금주전례: 정원자 독서-유복규씨 부부 봉헌-김남희씨 가족  
차주전례: 김영수 독서-장동주씨 부부 봉헌-김현택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84,750원 □ 교무금: 2,581,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 오늘은 대림 제3주일: 자선의날입니다-미사중 2차헌금**
1. 사목회장선거: 22일(다음주) 학생 공식미사 중에 구역, 반장, 제대제장, 사목회연석회의: 오늘 저녁7시, 빠짐없이 참석해주시요.
  3. 성가제, 청년회: 공식미사 후 4. 섬서읽기: 야고보서 전체
  5. 금주침소: 천사들의모후Pr
  6. 판공일정: 16일 - 신홍색터, 백암 17일 - 서당, 공기 18일 - 내정
  7. 금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유승천 ②이석남 봉헌-서병목, 최상욱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최원규 ②오귀남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33,420원 □ 교무금: 38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응

- \* 오늘은 대림제3주일(자선의날) 2차헌금있음**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알릴: ①성탄판공성사-12월20일까지 판공성사가 끝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판공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②예비자종합교리-12월16일(월)~12월20일(금)까지 저녁미사 후(종합교리에 불참하신 분은 영세받지못함)  
③영세식-12월22일(일) 공식미사 중(영세자와 대부분은 오전9시30분까지 집결바랍니다) ④봉성제-12월18일(수)  
⑤불우이웃돕기 성탄카드 판매를 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18,450원 □ 교무금: 1,599,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자선의날: 2차헌금**
1. 전신자 반모임연수: 17일(전구역 남교우: 오후7시30분부터) 18일(서완산동2가, 효자마을) 19일(신촌, 금호구역)
  2. 고백성사: 게시판 참고
  3. 집중교리: 18일(수)~20일(금) 오후7시30분(대부모, 유아세례자 부모 포함)
  4. 세례식: 21일(토) 오후7시
  5. 부부성가대를 위한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3교리실
  6. 관면흔백식: 우상길군 이미숙(세실리아): 20일(금) 어머니미사: 축하합니다.
  7. 성탄경품권판매: 이웃과의 사랑나눔
  8. 침소봉사구역: 3단지 서편
- 지난주 봉헌금: 684,870원 □ 교무금: 935,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교무금반납 ※ 성전보수헌금 ※ 주일금메기운동**
1. 자선의 날: 오늘 2차헌금. ②청년연합회 월례회(저녁미사 후)
  2. 오늘: ①바녀의 성모Cu(오후2시)
  3. 성화회: 18일(월) 오후6시 4. 성모회: 18일(수) 오전11시
  5. 합동판공성사: 18일(수) 저녁미사 후(성사표가전분들(한해서))
  6. 차주: ①성마리아Cu(오후2시) ②청년연합회 대청소(오후3시30분)
  7. 감사: 이기로(프란치스코) 헌금100만원  
(본당발상지기범비건립위해)
  8. 가족성가경연대회: 접수-사무실. 12월29일까지 참가비-3천원(1992년 1월중 실시 예정)
- ※ 금주보수비헌금액: 1,130,000원  
※ 현재모금총액: 261,168,801원 □ 지난주 봉헌금: 1,602,8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구

- \* 오늘은 대림 제3주일: 불우이웃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 축! 세례식: 21일 후7시 \* 대부모와 30분전에 도착바랍니다.
1. 세례대상자 면접: 17일 전10시~12시 후3시~저녁까지
  2. 성탄판공성사: 내일 후7시, 참회에 모두 참여바랍니다.
  3. 환자 봉성제: 19일 오전9시30분 환자들모인 기정은 신청바랍니다
  4. 청년회 임원개편: 회장-김현구, 부회장-임선우 총무-최영정
  5. 교도소 사목후원의 월례미사: 16일 전10시30분 센터1층
  6. 성탄절 기념 행운권판매: 1장-1,000원. 가정마다 2매이상
  7. 주중A.P.T방문: 20일 전10시, 교우찾기 운동에 협조바랍니다.
  8. 회의: 울뜨헤아-오늘 공식미사 후, 성모회-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736,760원 □ 교무금: 1,047,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자모회: 오늘미사 후.
  2. 레지오 친목회: 오늘미사 후(신홍식당)
  3. 전례자 모임: 17일(화) 오후8시. 4. 청년회: 다음 주일미사 후
  5. 반모임: 17일(화) 오전10시반-성원골드, 오후2시반-한양운남. 오후8시-삼정1,3,18일(수) 오전10시반-화산1, 오후2시반-신일, 19일(목) 오후2시반-동신. \* 성탄절야미사: 오후9시 \*  
6. 성탄판공미사: 19일(목) 오후2~5시-동신, 화산1, 평화, 화산2(A), 20일(금) 오후2~5시-삼정1,2,3, 금화, 화산2(B), 21일(토) 오전10~12시-성원골드, 한양운남, 신일 \* 토요일 저녁미사 후, 일요일미사 후(적당인-성당에서) 22일(일) 오후2~5시-그외 모두(사제관)
  7.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김혜화, 신정권
- 지난주 봉헌금: □ 교무금: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성전복구를 위해 기도와 정성을 봉헌합시다. 2. 판공성사(공동): 17(화) 오후7시부터 3. 성탄반 예비자 피정 및 집중교리: ① 피정-오늘 08:30~17시 ② 집중교리-17(화)~20(금) ※ 영세식-22(일) 오후3시 미사중에 4. 성탄대축일 대축제: ①초등부-21(토) 오후4시 ②중고등부-21(토) 오후6시 ※ 학부형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5. 구역성가경연대회: 22(일) 오후8시 지정곡(98장, 10장) 6. 91년도교무금유속해완납해주시고 92년도 새해교무금성대별로 빠짐없이 선일해주시기 바랍니다.(20%인상요망) 7. 성당재구봉헌받습니다(독서대, 장문대등) 8. LM연차전목회: 29(일) 오후2~5시
- 지난주 봉헌금: 1,223,650원 □ 교무금: 4,57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 \* 자선의날 2차헌금 있습니다.**
1. 영세식: 21(토) 저녁7시 2. 사목회: 저녁미사 후
  3. 삼호관공: 20(금) 저녁 4. 은혜의밤: 20(금) 저녁10시
  5. 특별고백: 19(목) 저녁7시
- 차주모임: 반석회  
신축헌금 봉헌액: 1,930,000원  
금주전례: 해설-김홍성 독서①권일민②표순례  
기도①김창선②이금연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황인용②박근자  
기도①엄정준②임요정
- 지난주 봉헌금: 1,024,710원 □ 교무금: 4,908,000원